

2. 품종의 고유특성은 재배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.
3. 건물수량은 봄 재배의 경우 중생종이 조생종에 비하여 약 30% 많았으나, 가을 재배의 경우는 반대로 조생종이 중생종에 비하여 13%정도 많았다.
4. 따라서 봄 재배의 경우는 후작물의 선택에 따라 조생 또는 중생종 품종을 재배할 수 있으나 가을 재배의 경우는 조생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건물생산성에 유리하였다.

35.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가 숙기가 다른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수량과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

김종덕^o · 박형수* · 김수곤* · 김동암*

축산기술연구소,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*

본 시험은 파종시기를 한달 간격으로 두었을 때 숙기가 다른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수량과 사료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정 수확시기를 알기 위하여 수행하였다. 전식물체, 경엽, 암이삭 및 알곡의 건물물은 상대숙도가 다른 품종간에 차이가 뚜렷하였다($P < 0.05$). 암이삭 비율은 조생종인 DK501과 P3514 품종이 높았으며, 파종기간에는 조기파종이 만기파종보다 높았고 수확시기는 늦어짐에 따라 암이삭의 비율이 증가하였다. 건물수량 및 TDN 수량은 조중생종인 P3514 및 P3352가 가장 높았으며 조생종인 DK501이 가장 낮았다. 파종기간에는 공시품종 모두가 조기파종이 만기파종보다 높았다($P < 0.05$). ADF 및 NDF 함량은 숙기가 늦은 품종일수록 증가하였으며, 파종기간에는 조기파종이 만기파종보다 낮았고, 수확시기는 늦어짐에 따라 ADF 및 NDF 함량이 감소하였다. TDN, NE₁ 및 CDOMD는 숙기가 늦은 품종일수록 감소하였으며, 파종기간에는 조기파종이 만기파종보다 높았다. 수확시기간 비교에서는 모두가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였다.

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숙기가 다른 품종간에는 사초수량 뿐만아니라 사료가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. 따라서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품종 비교나 정부 장려품종의 선발에는 사초생산성 뿐만아니라 사료가치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.